

주민 힘으로 일군 '관광명소 마량항'

작은 어항이던 강진 마량항이 지역 주민의 힘으로 전국적인 관광명소로 화려하게 변신하고 있다. 지난 2006년 미항(美港)사업 이후 토요 음악회와 횡간 거품빼기 등 다양한 볼거리와 먹거리가 어우러지면서 주말이면 마량항을 구경하려는 관광객이 물러들고 있는 것이다.

▷미항 명성 되찾다= 강진의 유일한 항구인 마량항은 과거 육지와 제주도를 잇는 통로였다. 제주의 말을 싣고 처음 정착하는 곳이기도 했다. 그러나 70년대 이후 어족자원이 고갈되고, 전국적으로 주요 뱃길 이 새로 열리면서 마량항은 쇠퇴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마량항은 그러나 지난 2006년 9월 강진군의 어촌어항 복합공간조성시범사업 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전환점을 맞았다.

군은 정부의 지원을 받아 112억 원을 투입, 3곳의 방파제에 주변 경관을 감상할 수 있는 전망데크(높이 3m)와 야외무대, 산책로, 야간 경관 시설을 설치하는 등 관광 인프라를 구축했다.

▷주민의 힘으로 완성=주민들은 미항 조성 이후 수많은 관광객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마량항내 21개 횡간이 도산 위기를 겪어 면할 정도로 기대 이하였다. 이에 강진군과 주민들은 마량항 살리기

방파제 무대 토요음악회 열어 볼거리 제공

횡간 거품빼기 주말손님 2배·매출 30%↑



지난달 열린 강진 마량 미항 토요음악회, 방파제에 리모델링해 야외무대와 광장 등이 마련된 마량항에서는 2006년 11월부터 모두 40차례 음악회가 열려 매회 500명이 넘는 관광객이 몰려 들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에 머리를 맞댔다. 우선 관광객이 웃고 즐길 수 있는 토요 음악회를 기획했다. 방파제를 리모델링해 야외무대와 광장 등을 설치한 뒤 2006년 11월부터 모두 40차례 음

악회를 열어 매회 500명이 넘는 관광객을 불러 모았다. 여기에 지난해 7월 개통된 마량과 고금도를 잇는 고금대교 덕에 교통량과 유동인구도 3배가량 늘어났다.

▷횡간 거품빼기=그러나 고금대교의 관광효과를 기대했던 주민들은 또다시 좌절했다. 대부분의 관광객이 마량항을 눈으로만 보고 지나갔기 때문이다.

마량항 주민들은 또 아이디어를 짜냈다. 이번에는 마량항의 대표적 먹거리인 횡간의 거품을 빼자는 데 뜻을 모았다.

마량항내 횡간연합회는 지난 4월 양식 활어의 경우 kg당 5만원에서 3만원으로 낮추고 포장 회 가격도 kg당 3만원에서 2만원으로 인하했다.

결과는 확실했다. 횡간들의 매출은 30% 이상 늘었고, 관광객도 주말이면 기존보다 두배 이상 늘어난 2천~3천명 이상 몰렸다. 마량 횡간연합회는 관광객 유치에 기여한 공로로 최근 전남도로부터 '남도 친절왕' 상을 받았다.

장상륜(63) 마량 횡간연합회장은 "가격 거품을 빼니 주말이면 식당마다 손님이 넘쳐나고 있다"면서 "요즘은 친절하고 깨끗한 식당 만들기 운동을 통해 고객 만족도를 높이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北 비핵화 협력 긍정적”

李대통령 현충일 추념사

이명박 대통령은 6일 “남과 북은 그동안 대화와 교류협력을 꾸준히 이어왔고 만족스러운 수준은 아니지만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립현충원에서 열린 제 53주년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 추념사를 통해 “저는 북한이 비핵화를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하는 것을 긍정평가하며 현재 진행 중이거나 앞으로 함께 추진할 교류와 협력사업에 대해 남북간 진지한 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과거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 남북관계의 긍정적 측면을 인정한다는 점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으로, 6.15, 10.4선언을 절대시하는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들이려는 의도인 것으로 풀이된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코레일 사장 강경호씨 내정

6일 국토해양부와 산하 공공기관들에 따르면 코레일 신입 사장에는 강경호 전 서울메트로 사장이 사실상 확정돼 최종 절차만을 남겨두고 있다.

강 전 사장은 한라중공업 사장, 한라그룹 부회장을 지냈으며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 장 재직시절 서울지하철공사 사장과 서울메트로 사장을 지냈다.

류철호 전 대우건설 부사장은 한국도로공사 사장이 확정적이다.

주택공사 사장에는 최재덕 전 건설교통부 차관이 사실상 확정됐다.

토지공사 사장에는 이종삼 전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연합뉴스

서민 유류세 감면·기업환경개선

당정, 5~7조 지원 민생대책 내일 발표

정부와 한나라당이 오는 8일 국제유가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에 대한 유류세 감면을 포함한 민생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당정은 장기적으로 서민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경제 전체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기업환경개선, 창업투자, 건설투자, 미분양대책 등 장기적 대책도 종합대책에 포함한다는 방침이다.

6일 정부와 여당이 따르면 당정은 오는 8일 오전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협의를 열어 종합적인 서민안정 대책을 논의한 뒤 발표할

계획이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서민생활과 직결된 경우 비용 문제를 포함해 획기적인 서민안정대책이 나올 것”이라며 “유류세 감면을 포함해 물가 대책, 창업투자 세 부담 완화 등 기업환경 개선 대책, 건설투자 지원책, 미분양 대책 등이 담기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정부와 여당은 이번 서민안정대책의 선별 지원 대상으로 경우 등 유가 상승으로 인한 피해가 큰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와 차상위 계층, 생계형 자영업자 등을 선정하는 방안

을 검토하고 있다.

당정은 이미 지난 3일 회의에서 유류세 수입과 유가 상승에 따른 세수 증가분을 화물차 및 대중교통과 영세·저소득 자영업자 등 서민에게 돌려주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와함께 석유류 유통 개선을 위해 대형마트도 주유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며 유가상승에 따른 운송료 부담을 영세업자에게 전가할 수 없도록 화물차의 최저 운송료 기준을 정부가 정하는 표준운임제도도 고려하고 있다.

서민안정 대책의 지원 규모는 세계잉여금 중 사용하고 남은 4조9천억원에 일정액을 보탠 5조~7조원 정도로 알려지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 '6·10' 겨냥 장외 투쟁 가속

72시간 촛불문화재 지도부 등 참여

최고기 재협상 촉구를 위한 72시간 촛불문화제에 야권도 합세하는 등 현충일인 6일에도 야당의 강공 드라이브는 계속됐다.

이날 통합민주당 김상희·홍재형·송영길 의원을 비롯한 지도부와 소속 의원 등 40여명은 5일 저녁부터 시작된 72시간 릴레이 촛불문화제에 참여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차영 대변인은 “국민과 함께 하고 국민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기 위해 당차원에서 참여하기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72시간 동안 계속될 촛불문화제

내내 당 지도부와 소속 의원들이 릴레이로 참여할 방침이다.

앞서 촛불문화제에 참여한 민주노동당에 이어 민주당까지 촛불을 들면서 대외 공세 수위는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이러한 야권의 움직임은 사실상 '6·10'을 겨냥하고 있다. 6·10 항쟁 21주기를 10일은 대규모 군중집회가 계획돼 있는 만큼 최고기 정권의 일대 분수령이 될 수 있을 것이란 판단에서다.

하지만 촛불을 든 거리 정치가 전혀 부담스럽지 않은 것은 아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민생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국회는 나몰라라 마냥 서민들의 의견만 쫓을 수는 없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펴고 있다. 최고기 정권의 해법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자칫 국가적 혼란만 부채질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김대중(DJ) 전 대통령이 등원을 촉구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야권의 고민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 전 대통령은 지난 4일 신임인사차 동교동 김대중도서관을 예방한 원혜영 원내대표 등 민주당 원내대표단에게 “국회의원은 국회에 들어가야 한다. 원내에서 싸우라고 국민이 뽑아준 것”이라며 “1963년부터 내가 국회의원을 했지만 야당 하면서 원내에 등원 안하고 성공한 적이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시 설

영산호 수질 악화 원인 철저히 규명해야

영산호 Ⅲ단계 간척 사업의 설계 잘못으로 영암호와 금호호, 영산호의 수질이 악화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와 충격적이다. 해남군은 최근 지난 1988년부터 시작된 영산호 Ⅲ단계 간척 사업의 잘못된 설계 변경으로 영산호 등 3개 호의 수질이 농업용수로도 사용하기 어려운 4등급 이하로 떨어졌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해남군은 영산호 Ⅲ단계 간척사업 당시 농촌공사가 개답 공사를 설계하면서 수질개선 효과가 큰 갯고랑을 살리겠다는 당초 계획을 바꿔 갯고랑을 메우는 바람에 수질 정화기능을 악화시켰다고 주장했다. 또 영암호와 금호호로 이어지는 대형 수로를 2개 만든다는 계획과 달리 1개만 설계, 호수의 물순환이 막혀 수질이 크게 악화되고 있다.

영산호의 현재 수질은 오염이 심한 6등급이고, 영암호 방조제와 금호호 방

조제도 연간 퇴적물이 일반 방조제의 15~20배 수준인 20~30cm에 이르는 등 날로 수질이 악화되고 있다. 3개 호의 이 같은 수질로는 2등급 이상의 수질이 요구되는 서남해안관광레저기업도시 조성사업은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간척지의 각종 농작물이 친환경농업 인증을 받을 수 없게 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

당국은 영산호 Ⅲ단계 설계의 문제점은 반드시 규명돼야 한다. 설계 변경과 수질오염과의 인과관계를 보다 정확히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 수질 오염 원인이 간척지 설계 잘못으로 드러나면 무엇보다 설계가 변경됐고 누가 지시하는 지 등을 명확하게 따져 간척사업의 시행자인 농촌공사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 앞으로 수질 개선에 들어가는 막대한 비용도 농촌공사에 부담시켜야 할 것이다.

서민 실감하는 민생종합대책 내놓아라

정부와 한나라당이 내일 민생종합대책을 발표한다. 고유가와 경기 침체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을 위해 경제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당·단기 대책을 내놓는 것이다. 당정이 뉘엿게나마 민생에 관심을 갖고 대책을 마련한 것은 다행이다.

종합대책에는 유류세 감면을 비롯한 물가 대책과 기업환경 개선, 건설투자 지원, 미분양 대책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단기적으로 교통이 큰 서민층을 선별해 집중 지원하고 장기적으로는 경제 활성화를 통해 서민경제를 살린다는 것이다. 정부 부처간 조정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고 하니 구체적인 내용이 주목된다.

서민들의 경제적 고통은 심각하다. 통계청이 어제 발표한 지난달 개인서비스 물가는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4.4% 상승했다. 2004년 1월의 4.5% 이후 52

개월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물가가 치솟던 고공행진을 거듭하고 있는데도 국민의 소득은 줄어든다고 있는 것이 우리 경제의 현실이다.

이번 민생종합대책은 서민생활을 안정시킬 수 있는 획기적 대책이 되어야 한다. 지난번 고유가 대책처럼 ‘언 발에 오줌누기’가 되어선 안 된다. 당정은 서민이 피부로 느끼고 혜택을 볼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공공요금 인상 억제와 사재기 등에 따른 대책도 당연히 포함되어야 한다.

경제정책의 기초도 확실히 해야 한다. 정부는 ‘성장’과 ‘물가’ 중 어느 쪽에 무게중심을 둘 것인지 조목조목하고 있다. 정부는 더 이상 경제성장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 스테그플레이션 우려가 고조되고 있는 현실에서 뛰는 물가를 잡지 못하면 ‘성장’과 ‘물가’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놓칠 수 있다.

10일 나주서 ‘혁신도시 건설 촉구 전국대회’

지역균형발전 전국회의

혁신도시 건설예정지역 주민,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 2천여명이 참석한다.

정부는 혁신도시 재검토 방침에 맞서 혁신도시의 차질없는 건설을 촉구하는 전국대회가 열린다.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전국회의가 주최하는 ‘지방살리기 및 혁신도시 건설 촉구 전국대회’가 10일 오후 3시 나주시 남교앞 앞에서 개최된다. 행사에는 최인기 국회의원, 신정훈 나주시장, 김휘동 안동시장, 조수중 수도권 과밀대책 전국연대 상임대표, 이인원 전국가균형발전위원회장과 전국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정부가 지방분권과 공동화를 부르는 일방적인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을 철회하고 국가 균형발전 정책을 지속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할 예정이다.

또 혁신도시의 근간을 흐르는 혁신도시 이전기관 민영화 방침 철회 등 혁신도시의 차질없는 건설을 위한 정부차원의 대안 마련을 주문할 계획이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오바마 - 매케인 백중세

11월 미국 대선의 본격적인 막이 오른 가운데 민주당 버락 오바마와 공화당 존 매케인 후보가 여론조사 지지율에서 오차범위 내의 백중세를 보여 2000년과 2004년에 이어 또 다른 대결전이 예고되고 있다.

CNN이 갤럽과 퓨 리서치, 뉴스위크, CBS 4개 기관의 여론조사를 합성한 결과 오바마는 47%의 지지율로 매케인의 45%를 2%포인트 차이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2%포인트 격차는 보통 오차범위 내에 속해 우열을 단정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CNN이 합성한 4개 기관 조사는 오바마가 민주당 후보로 확정되기 전인 5월21일부터 6월3일까지 실시된 것으로 10% 가까운 응답자는 부동층으로 분류됐다.

리쓰먼 리포트가 5일 발표한 조사에서도 오바마와 매케인은 47%대 45%로 2%포인트 차 박빙 경합 중이었다.

오바마는 이날 민주당이 64년 대선 이후 한 번도 승리하지 못한 버지니아주에서 유세를 열어 11월 대선을 향한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개시했다.

매케인도 대선 전략지역인 플로리다주에서 유세를 벌이는 것으로 대선 승리를 위한 선거전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연합뉴스

빛의 만평

- 김중두



하마라야가 이보다 높을까?!

경유값, 휘발유보다 ㄹ 당 10원 더 비싸

가파른 오름세를 타면서 휘발유값을 추월한 경유값이 휘발유값과의 차이를 ㄹ 당 10원까지 벌렸다. 또 정유사 상표별 주유소의 판매가격은 최고 ㄹ 당 17원 이상 차이난 가운데 GS칼텍스가 가장 비쌌다.

6일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6월 첫째주(6.2~6일) 전국 1천100개 주유소를 표본으로 실시된 가격조사에서 경유의 평균 가격은 ㄹ 당 1천917.03원을 기록해 휘발유(1천907.08원)보다 ㄹ 당 9.95원 비싸졌다.

지역별로는 서울의 경유 가격이 ㄹ 당 1천964.94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42.78원 올라 가장 비쌌고 대전(1천897.15원)과 전북(1천878.

50원)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도 모두 1천900원선을 넘겼다.

휘발유 역시 서울이 ㄹ 당 1천961.05원으로 전주대비 34.75원 올라 가격이 가장 높았고 대전(1천894.55원)과 충북(1천896.07원), 충남(1천898.32원), 전북(1천879.19원) 등의 지역만 1천900원선 아래에 머물렀다.

정유사 상표별 주유소 판매가격을 보면 경유는 GS칼텍스가 ㄹ 당 1천924.38원으로 가장 비쌌고 SK(1천918.92원), 에쓰오일(1천908.06원), 현대오일뱅크(1천907.10원) 등이 뒤를 이었다.

또 휘발유도 GS칼텍스가 ㄹ 당 1천914.18원으로 가장 높았다. /연합뉴스

光 卍 日 報		The Kwangju Ilbo	
회장 許宰浩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禎榮	논설실장 金東永	편집국장 申港樂
1952년 4월 20일 創設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20-2 우편번호 501-7111			
대표전화 2200-551·222-811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내선 <대표 FAX 222-4918>	사회 2부 2200-619 <F A X 227-0118>	경영지원국 2200-511 <F A X 222-8005>	문화홍보국 2200-541 <F A X 222-0195>
편집부 2200-629	문화생활부 2200-626	광고매케팅 2200-521	독자서비스국 2200-551 <F A X 227-9500>
정치부 2200-616	여론매체부 2200-628	경제부 2200-617	체육팀 2200-627
사회1부 2200-618	체육팀 2200-627	사 진 부 2200-690	사 회 부 2200-570 <F A X 222-4267>
*구독료 월정 8,000원 1부 4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